

K-MOOC 상담학 들어가기 학습자료

<강 자녀 내담자 사례>

1. 배경정보

40대 초반 여성/전문대졸/10년 전 현 남편과 동거시작/5년 전 결혼/전업주부/기독교

2. 호소문제

- 자녀들이 나를 힘들게 하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난다. 때리는 행동을 그만둘 수가 없다. 이렇게 성질을 내는 내가 싫다. 그래서 분노조절을 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 자존감이 너무 낮다. 나의 오래 전 반복되었던 성폭행 경험과 관련되는 것 같다.
- 이성(요즘에는 남편)에게 자꾸 매달린다. 조금 거리가 생기는 것 같으면 견딜 수가 없다. 그럴 때마다 상대방은 내게 너무 숨 막힌다면서 화를 낸다.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지만 멈출 수가 없다.

3. 발달배경

내담자는 시골에서 2남3녀 중 넷째 딸로 태어났다. 엄마는 내담자를 임신했을 때 아들인 줄 알았는데 또 딸을 낳은 것이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내담자를 출산한 후 찬물로 빨래를 자주 했다. 이처럼 엄마는 산후 조리를 잘 못해서 자신이 아플 때 마다 “내가 너 땀에 아프다”는 말을 자주 했고, 그 말을 들으며 자란 내담자는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 또는 ‘이 세상에 출생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라는 생각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했다.

내담자가 어려서 부모의 말을 잘 안들을 때마다 부모는 진심으로 내담자를 멀리 수양딸로 보내려고 하거나 실제 보냈는데, 그럴 때마다 내담자는 “말 잘 들을 테니 제발 버리지만 말아 달라”고 울며 매달리거나 그 집에 계속 놔두면 죽겠다고 하여 겨우 집으로 다시 돌아오곤 했다. 내담자는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땅바닥에 누워서 소리를 지르며 사줄 때까지 요구했으며, 온가족이 내담자의 그런 행동을 보고 “아빠를 닮아 성격이 무섭고 불과 같다.”고 했다.

내담자는 아버지를 무척 폭력적인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 예컨대, 가전제품을 아주 좋아했던 아버지가 앰프를 망가뜨린 언니에게 옆에 있던 큰 유리 재떨이를 집어던져 언니의 머리가 깨져 응급실로 갔던 사건을 비롯하여 여러 폭력적인 사건들을 경험했다. 이후 내담자는 동네 오빠나 동생뿐 되는 남자, 또는 언니의 여자 친구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주변으로부터 “너만 보면 재수 없다.”는 말을 들으면서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했다. 특히 내담자를 가장 싫어하는 큰 언니는 내담자를 계단에서 밀고 목을 조르는 행동을 자주 했다. 내담자는 이러한 경험들을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거나 주변사람이나 자신의 삶 자체에 대해 분노하면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중학교 시기 이후에는 혼자 산과 들로 자주 돌아다녔고, 자신과 비슷한 친구를 사귀면서 밖으로 방황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여러 번 가출도 했는데, 이때 언니친구(여성) 등과도 성행위를 수차례 한 경험이 있다. 이즈음에는 주변 사람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미워하고 있으며, 자신은 무가치하고 세상에 날 필요도 없었다는 생각에 빠져 술과 수면제를 먹고 여러 차례에 걸쳐 자살시도를 했다.

고등학교 때에는 아예 집을 나와 언니가 있는 거주지로 옮기게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마음을 붙일 곳이 없어 외롭게 지내다 여러 남자들을 만났지만, 그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버려지곤 했다. 고2때 병원에서 1년 정도 약물처방을 받으면서 정신치료를 했으나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몸은 계속 처지게 되면서 힘만 들었다.

이후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게 되었는데 알고 지내던 언니의 남동생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난 뒤 그 남자와 교제를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그 남자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매달리기 시작했으며 이후 현재 남편과 결혼할 때까지 여러 명의 남자를 만났다. 현재 내담자는 그러한 자신의 기억들이 반복적으로 떠올라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 것 같은 두려움에 자신과 관계했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다.